

국립문화재연구소
월북미술가 학술심포지엄

Art History
and Forgotten Artists
under the Division

분단의 미술사 잊혀진 미술 가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5.17 금요일 13: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1층 멀티프로젝트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분단의 미술사, 잊혀진 미술가들’을 주제로 월북미술가 학술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50돌을 맞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84년부터 북한 문화재 학술연구를 묵묵히 진행해왔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미술사를 하나로 잇는 가교인 월북 미술가 연구를 시작하며, 지난 연구의 과정을 성찰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 5.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종덕**

일시 2019년 5월 17일 (금)
13:00-17:00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1층
멀티프로젝트홀

진행순서

식전행사	
13:00-13:50	참석자 등록
13:50-14:00	국민의례 개회사 / 최종덕(국립문화재연구소장) 축사 / 윤범모(국립현대미술관장)
1부	월북미술가 연구사 점검과 성찰
14:00-14:30	해방 후 미술계 분단과 월북미술가 연구 의미 / 박윤희(국립문화재연구소)
14:30-15:00	월북미술가 복권과 북한미술사 인식의 기원 / 최열(미술평론가)
15:00-15:30	월북미술가 재조명과 향후 연구 과제 /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경기대 교수)
15:30-15:50	휴식
2부	분단 70년, 기억 속 그들과의 만남
15:50-16:00	미술가 소개 영상 상영
16:00-16:50	미술가 후손들과의 좌담회 / 후손: 정단일, 임덕진, 박재영 패널: 김복기, 최열, 신수경
16:50-17:00	폐회사 / 박대남(미술문화재연구실장)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참석 가능합니다.(무료)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042-860-9199/ gek924@korea.kr

오시는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